“독립운동 선지식 가르침 기립니다”

조계종 ·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추모위령재

두 기관 공동주최 첫 행사
전통등 전시 항일불교 조명
다큐 뮤지컬 ‘비스독’ 공연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 천안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위령재’가 5월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1층 불굴의 한국인상 조형물 앞에서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이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첫 공식 추모 행사로, 위령재와 전통등 전시, 특별 강연, 다큐 뮤지컬 ‘비·스·독(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공연이 펼쳐졌다.

합동 위령재는 조계종 사회국장 덕제 스님의 사회와 어산종장 덕림 스님의 집전 아래 지장불공과 화엄시식으로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진경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주와 자유를 지키려 한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있었다”며 “돌아가신 영가들께 지극한 예를 올리고 그 원력과 공덕이 극락왕생의 인연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모든 인간의 행복”이라며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공포 속에서도 조국 광복의 결연한 의지로 일어섰던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백용성 스님과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을 한 분씩 호명하며 종파를 초월한 항일운동의 연대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와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영령들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언 스님(천태종 만수사 주지)은 발원문을 통해 “조국의 자주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극락왕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조계종과 독립기념관이 5월 17일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불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화쟁정신을 통해 통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장인 겨레의집은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조성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불교계 추모행사의 상징성을 더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아기부처상, 사명대사, 석가탑, 연꽃 등을 모티브로 한 전통등 9점이 설치되어 호국불교 정신과 평화를 염원했다. 전통등은 불교의 상징성과 독립운동 정신을 동시에 담아낸 시각적 장치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위령재 후에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불교’를 주제로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가 ‘운허 스님의 교육과 독립운동’에 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된 불교 관련 독립운동 자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예술로 형상화한 다큐 뮤지컬 ‘비·스·독’이 공연됐다.

전주 금선암 혜융 스님 초청법회

5월 18일 극락보전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은 5월 18일 극락보전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수행관장 혜융 스님을 초청해 일요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해 혜융 스님, 불지선원 주지 승원 스님과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을 포함한 금선암과 불지선원 신도 70여 명이 동참했다.

법문에 나선 혜융 스님은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해탈의 길이며, 자기만을 위한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며 “자비희사·사무량심 수행을 일상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의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다녀왔다”며 “혜융 스님의 말씀처럼 자비희사·사무량심 수행으로 요익중생의 선업을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보림사 ‘명상과 문학의 밤’

5월 17~18일…정지아 작가 강의도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가 문학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과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5월 17~18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명상과 문학의 밤’ 행사는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의 명상 강의, 정지아 작가의 강의와 대담, 새벽 명상,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정읍 보림사와 이은심리상담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명상 수행과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문학적 성찰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가자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었고, 작가님의 이야기에서 공감을 얻었다”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특별한 밤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읍 보림사는 다양한 명상 수행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를 통해 지역 불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마음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찾아가는 마을 법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승려복지시설 ‘승가림’ 개원

5월 21일 개원식…삼보 대종사 원력 결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5월 21일 승려복지시설 ‘승가림’ 개원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개원은 수행자의 노후를 승가공동체인 교구본사가 책임진다는 철학 아래 추진된 승려복지 실천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법흥사 주지 대웅 삼보 대종사를 비롯해 교구 스님들, 사부대중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에 개원한 승가림은 제4교구본사 소속 스님과 교구 발전에 공헌한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념 스님의 발의로 지난 2023년 본격 추진됐으며, 삼보 스님의 원력과 후원이 더해져 결실을 맺었다. 총사업비 36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삼보 대종사의 희사금으로 나머지 6억 원은 월정사 자부담으로 충당됐다. 삼보 대종사는 “정념 주지 스님의 혜안과 실천력으로 승가원이 완공되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행과 보살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삼보 대종사의 원력은 수행자의 삶을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실천적 선언이었다”며 “승가림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어른스님들이 수행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한국불교의 승려복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수덕사, 경허 선사 113주기 다례재

5월 21일 대웅전서 봉행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 성우 대선사의 열반 113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열렸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5월 21일 대웅전에서 경허 성우 선사 열반 113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공덕사 회주 혜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 해인사 원로 석후 스님과 도오 스님, 마곡사 전 주지 법룡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 등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했다. 다례재의 종사영반은 지만 스님이 법주를 맡고, 흥법 스님이 바라지를 맡아 의식을 이끌었다.

설정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경허 스님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기억력과 통찰을 지닌 분이었지만,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수행의 길을 걸었다”며 “스님이 역병이 돌던 마전리 마을에서 두 달 동안 머물며 곡식과 약을 구해 이재민을 도왔다는 지역 주민의 증언이 있다. 선(禪)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경허 스님의 ‘참선곡’ 탄생 배경도 언급했다. 설정 스님은 “경허 스님이 해우소 앞에서 사미에게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게 한 것이 참선곡이며, 문장 구조와 사상 모두 뛰어난 수행문헌으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월정사, 어산작법학교 학인스님에 장학금

5월 19일, 1250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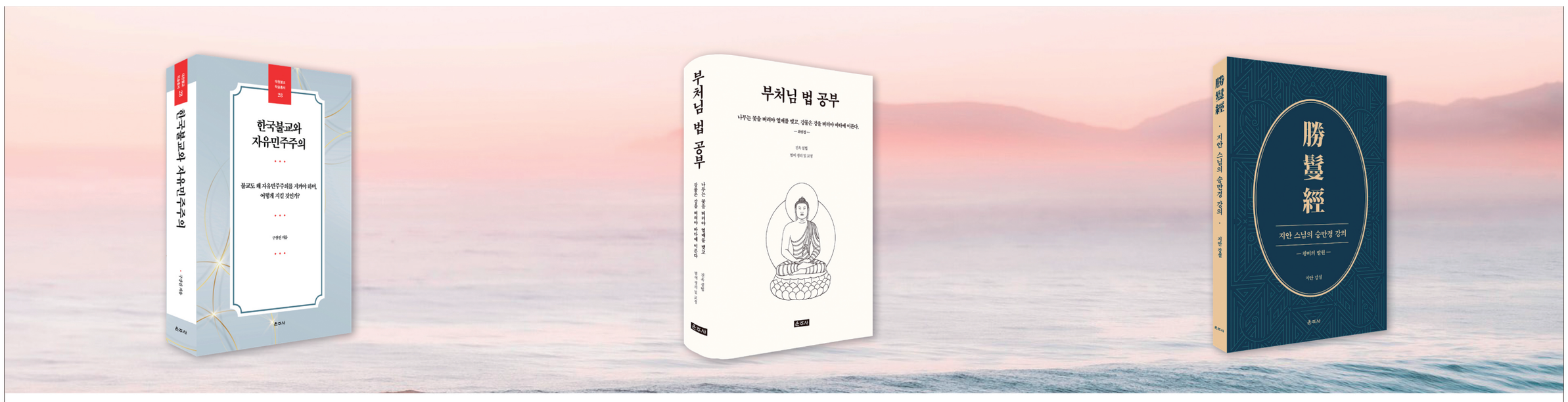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전통 불교의례 계승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정성을 보탰다.〈사진〉

월정사 신행국 실장 혜묵 스님과 금강경 봉찬기도회 소속 스님·불자 등은 5월 19일 서울 조계종 어산작법학교를 찾아 장학금 125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전통 불교의식인 어산작법 계승을 위해 배움의 길에 있는 학인스님을 지원하고자 월정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신행단체인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마련했다.

혜묵 스님은 “출가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어산작법을 배우려는 학인스님들의 발심과 노력은 불교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희망”이라며 “모든 수행자가 정성껏 정진해 시방세계가 청정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